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5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34)	봉헌 (510)	성체 (180)	파견 (54)
---------	---------	----------	----------	---------

제1독서 | 2사무 5,1-3

화답송 | 시편 122(121),1-2,4-5(◎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제2독서 | 콜로 1,12-20

복음환호송 |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 루카 23,35ㄴ-43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17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11/24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1	유 요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8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95	\$45	\$1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1/2	유 요한/유 마리아	12/7	김 마론/ 김 헬레나
11/9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2/1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16	홍 마르코/ 홍 아네스	12/21	손 아놀드/ 손 쟈마
11/23	김 요아킴/ 고 안나	12/2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11/30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1/4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거룩한 얼굴

-나혜선 요셉피나 | 성가가수, 금속공예가-

몇 해 전, 제 바닥이 어디인지 낱알이 확인하게 되면서 인생 최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강화도의 빼곡한 밤하늘 별들 사이에서 지는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도 저렇게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가족에게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가지 돌린 말을 쏟아내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뾰족하게 굴고 말았습니다. 굵이 굵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골짜기에 갇혀 힘에 부치는 순간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가진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서 무릎은 꿇이고 좌절하게 되는 듯싶습니다. 그 순간에 제 삶의 방향에 대해 뒤돌아 볼 신앙의 깊이가 있었더라면, 하느님의 값진 초대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전히 저는 그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홀로 견딜 힘이 부족할 때에는 복음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벗들을 만나게 해 주십사 청합니다. 그렇게 저를 하느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점검해 나아가다 보면 간유리처럼 뿌영더라도 그 방향만큼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한 제가 여러 시련을 겪는 동안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들을 통해 저와 함께 걸어주신 성령께서 제 안에 늘 뜨겁게 샘솟는 은총을 주셨음을 하느님께서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구든 고통스러운 무엇과 마주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별이라고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 하셨던 성모님의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12월 5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이번 임원회의는(오늘) 사정에 의하여 한 주 앞당겨 가집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남가주 성당 대림 판공성사 일정

12/10(화)바실성당, 12/12(목)성삼 성당, 12/16(월)성토마스 성당

12/17(화)성바오로 성당, 12/18(수)성마태오 성당,

12/19(목)백삼위 성당, 12/20(금)성아그네스 성당.

우리 성당에서는 이번 대림특강 초청강사 신부님은 없습니다.

우리 성당은 수요일을 제외한 모든날 미사 30분 전에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Thanksgiving Day 미사

11월 28일(목) 아침 9:30분 에 추수 감사절 미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성가대 성탄 공연: (Dec 13th at 6:00pm \$10.00)

18세 미만은 무료, 단돈 5불에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심어 놓은 하늘의 별들 중에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심어놓은 별은 몇 개쯤 될까요? 이 별들이 그토록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좋은 것들만 모여야 가능한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니 허투루 보낸 고통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사랑과 고통은 공존의 영역에 함께 있어야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하늘에 수많은 별을 올려다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헤아릴 수 없는 별들 중에 '내가 심어 놓은 고통은 몇 개쯤 될까, 내가 심어 놓은 기쁨은 몇 개쯤 될까, 내가 심어 놓은 감사는 몇 개쯤 될까...?'

이 모든 것들 안에 놀랍도록 빛나는 하느님의 섭리는 그 무리 안에 제가 심어놓은 희로애락들도 함께 빛나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비어있는 별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자리에 새로 심길 누군가의 고통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치유되어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 사이에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길잡이 별'처럼, 그 자리에 심길 누군가의 '별'도 하느님께 다가서는 '길잡이 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묵상

+ 예수님,

선생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루카 23-42

(서울주보에서)